

지역 소식통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행복 나눔 봉사단 구성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시골마을 행복 나눔 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 북부지역 독거어르신 40가구를 선정해 40여 명의 봉사자가 중심으로 되어 건강꾸러미 배부와 안부 전하기 등 사회적 단절감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코로나19로 집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로당을 거점으로 모여서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어르신들과 봉사자의 1대1 매칭으로 진행된다. 봉사단은 방역 물품과 치매 예방 물품 등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매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두희 관장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정보화연구회

사전 경진대회 휩쓸어

부안군 정보화연구회(회장 김미구)가 지난달 실시한 '제10회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경진 사전대회'에서 정보화 분야 우수단체로 선정돼 단체부분 우수상, 개인부분 UCC분야 우수상, 블로그 포스팅 분야 장려상을 확보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ZOOM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시행 되었으며 블로그 포스팅, UCC,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분야 우수정보화 사례발표 등으로 경진이 진행됐다.

특히 한국 정보화농업연구회 장상을 부안군 정보화연구회 강금자 회원이 수여하였으며 UCC 청년부 우수상 정보화연구회 김미구 회장 블로그포스팅 장려상 장려상 태천블루베리연구소 민복덕 소장 등이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SOC기반구축 올인

서부산업도로 약 1.7km 구간 연내 전면개통 등 총력  
지역 간 도로접근성 향상·도심 교통체증 해소 기대

정읍시가 지역개발 여건 혁신을 위한 SOC 기반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부산업도로(작은말고개~상동회관~상동주유소~영화아파트)를 연내 전면개통하기 위해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올해 안 개통을 목표로 한 서부산업

도로는 작은말고개부터 시가동 영화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동주유소~벚꽃로 구간(L=376m, 35억원)과 2018년 작은말고개~상동회관 구간(L=900m, 75억원)이 개설했다.

현재 최종 연결구간인 상동주유소~상동회관 구간(L=364m, 55억원)과 정읍천 양쪽(벚꽃로~천변로)을 연결하

는 2·라다리(L=73m, 105억원)는 총 160여 원을 들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상동주유소~상동회관 도로 개설사업은 길이 364m 폭 35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11월 착공해 현재 포장 전 골재 공사를 완료했고, 9월부터 잔여 포장 공사를 추진해 10월 도로개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2·라다리는 현재 차도교 상부슬래브와 인도교 바닥판을 시공 중이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도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부산업도로 개통 시 신호 교차에 따른 교통체증을 방지하고자 상동회관과 상동주유소 앞 교차로에 총 2억 원을 들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유진섭 시장은 "서부산업도로 전면개통 시 도로 연속성이 확보돼 시내 지역 간 도로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교·입암 방면과 북면·태인 방면 교통량이 분산돼 시내구간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저감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개설에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소유주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SOC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부산업도로(작은말고개~상동회관~상동주유소~영화아파트)를 연내 전면개통하기 위해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2년차... 농가당 60만원

14일부터 추석 전 지급 완료

고창군이 도내 최초 시작해 올해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농민공익수당이 추석전 지급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만195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여원 상당이다. 추석전 지급을 완료해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농촌 공익가치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제정하고, 총 29억원을 전라북도 최초 농민수당(1만162농가에 28만5000원씩)으로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고창 땅을 지키며 땅 흙터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농생명을 살리는 군정을 펴

겠다는 고창군정의 가치이자 마음이 집이었다. 특히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재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창군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실제 고창군민이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 1위에도 농민수당이 선정되며 남녀노소 모든 고창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이들을 울리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 팔걸어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창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3일 고창군은 유기상 고창군수 주재로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시책과 고창형 뉴딜 등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각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농생 명식품수도', '역사문화관광수도'의 핵심 전략사업에 집중해 ▲농수축산 친환경 브랜드 집중 육성 ▲세계 4대 식초도시 진입 ▲일물경과 함께하는 생물권협약합동벨트 조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에 따라 마을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통 서비스업과 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언택트 산업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을대교, 서해안 철도 등 대형국책사업 국가계획 반영에 군정 역할을 집중해 각종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감에 따라 농작물 후기 관리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 "태풍 후 농작물 후기 관리 철저를"

정읍시, 2차 피해 예방 당부

정읍시가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감에 따라 농작물 후기 관리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은 그 자체가 주는 피해도 크지만 지나간 후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해충 번식을 부추기면서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비의 경우 물에 잠기면 서둘러 물을 빼고 식물체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을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

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흑점나방, 멸구류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벼는 벼꽃 부딪힘 피해를 비롯해 2차적인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존보다 촘촘하게 심었거나 거름을 많이 준 논은 떨어진 통기성 때문에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또, 중국 남부지방에서 상습기류를 타고 흑점나방이나 벼멸구가 날아들 가능성이 크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야 한다. 채소류는 역병과 탄저병, 무름병, 뿌리혹병, 고추담배나방 등을 조심해야 한다.

탄저병이나 역병 병원균이 빗물을 타고 확산되거나 진딧물과 총재벌레, 나방류 등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답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의 부러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위에 도포제를 발라 병해를 예방하고 과수원의 경사로 인한 흩어 유실된 곳은 서둘러 정비한다.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 지주를 설치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이어나갈 수 있다. 또한, 낙과된 과실은 과원 내 청결을 위해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태풍이 지난 뒤에는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병원균 감염이 늘어나기 쉽다"며 "배수로 정비와 신속한 방제 작업, 칼슘 등 영양분 공급을 통해 작물 성장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태풍 '마이삭' 피해 신속 복구"

현장 점검, 전 행정력 동원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강조했다.

부안지역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평균 82.5mm(최고 111.5mm)의 비가 내렸으며 비도복·침수 789ha와 전신주 1개소, 간판 전도 1개소, 가로수 전도 5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권익현 군수는 주산면 소주리와 보안면 부곡리 일원을 찾아 비·도복 피

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또 계획된 양산리 및 동진면 동진리 비닐하우스 피해현장을 차례로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각 읍면별로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